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농업정책

❑ 농업정책

○ 성과를 내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 (로동신문 5.15)

- 김정일은 “산간지대나 벌방지대나 할것없이 모든 농장에서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여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화대군 송동협동농장에서는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여 농사를 잘하고 있으며 군의 각 협동농장에서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 송동협동농장 제3작업반에서는 연간 10여 톤의 돼지고기와 200여 마리의 새끼돼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매달 질 좋은 거름과 많은 물거름을 생산하여 논과 밭에 대고 있음.

○ 농업전선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자 (로동신문 5.20)

- 농근맹중앙위원회와 도, 시, 군농근맹조직에 함남의 불길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지휘부가 조직됨.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더욱 높이기 위한 목적 하에 벌어지는 사회주의 경쟁은 도, 시, 군농근맹조직과 협동농장, 그 아래 작업반 분조,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공장, 기업소의 작업반간에 진행되는 경쟁임.
-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는 경쟁참가단체를 실정에 맞게 구성함. 농산작업에 특성에 맞게 알곡생산부문, 축산부문, 과수부문, 잠업부문, 남새 및 공예부문,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공장, 기업소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함.
- 본보기농장인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 내려간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꾼들은 현실성 있게 세운 목표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실시함.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농업근로자들은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

2. 벼농사

❑ 봄갈이

○ 봄갈이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 (로동신문 5.11)

- 평안북도에서 기본면적의 논밭갈이가 성과적으로 끝남.

· 평양시에서는 부속품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면서 트랙터수리정비를 질적으로 하고 봄갈이에 필요한 영농물자를 마련하여 만경대구역, 순안구역을 비롯한 시안의 다른 구역, 군에서도 논밭갈이를 짧은 기간에 끝냄.
· 이미 3월말까지 밭갈이를 끝낸 황해북도 농촌에서도 논갈이가 마감단계에 들어섬. 연탄군, 신평군, 상원군에서는 논갈이가 이미 끝난 상태이며 승호군, 송림시, 연산군이 그 뒤를 바싹 따름.
· 황해남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농촌에서는 마감단계에 이른 봄갈이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모내기

○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열의안고 (로동신문 5.11)

·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모내기가 시작됨.
· 이곳 일군, 농장원들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어려운 기상조건 하에서도 벼랭상모판만들기, 씨뿌리기, 모판관리 등 봄철영농작업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자연흐름식물길을 이용하여 수백정보의 논에 단물이 흘러들게 함.
· 또한 모내는기계를 비롯한 농기계의 정비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논갈이와 써레치기(써레질)를 앞세워 모내기를 적기에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춤.

○ 청산벌에서 모내기 시작 (로동신문 5.13)

· 청산벌에서 모내기가 시작됨. 트랙터운전수들은 논갈이를 4월말까지 전부 끝냈으며 모판관리공들은 모든 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모를 실하게 키워냄. 기계화작업반원은 모내는기계를 모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완수함.
· 일군들은 토양조건과 벼품종의 특성에 맞게 필지별 써레치기 시작날짜와 평당 포기수 및 포기당 대수를 과학적으로 정함. 그리고 벼이삭패기 적기에 기초하여 작업반별, 분조별, 필지별 모내기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움.
· 모내는기계운전공, 모공급수들은 한알의 낟알이라도 더 많이 생산해내고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완수해내기 위한 열의로 모내기를 시작함.

○ 벼모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로동신문 5.16)

· 한해 농사에서 모내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황해남도와 강원도의 농업근로자들이 모판관리에 힘을 쏟고 있음.
· 황해남도 협동농장 일꾼들은 모판관리공의 기술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모두가 모판관리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농사에서 성과를 거둔 협동농장의 경험을 살려 모든 농장에 벼모의 생육상태와 일기조건에 맞게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기술적지도를 추진하고 있음.
- 문천시 남창, 룡정, 룡탄협동농장의 모판관리공은 종자의 생물학적 특성과 자연기후상태를 잘 알고 그에 맞게 모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벼모내기에서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 (로동신문 5.18)

- 벼모내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하는데 있어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평당 포기수는 지대적특성과 지력조건, 품종적 특성, 모내는시기, 비료주는 양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함.
- 기준평당 포기수를 지대적특성에 맞게 정하고 그보다 많을 때 밀식재배, 적을 때 소식재배로 해야 함.
- 소식재배는 평균기온, 낮과 밤의 기온차, 해비침률을 비롯한 기상조건이 유리하여 아지를 잘 치는 지대에서 건논과 모판자리논, 터논 등과 같은 지력이 높은 논에 적용해야 함.
- 밀식재배에서는 소출형성의 기초는 출발대수를 늘려 원대를 위주로 하여 이삭수와 알수를 확보하는데 있음.
- 포기당 대수는 2~3대를 기본으로 하며 모내는 시기가 늦을수록 1~2대 더 늘리는 원칙에서 해야 함.

○ 모내는기계의 가동률을 높이자면 (로동신문 5.19)

-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모내는기계의 가동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함.
- 모내는기계의 가동률을 높여야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철저히 보장하면서 최적기에 모를 낼수 있음.
-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은 현장에 내려가 모내는기계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함.
- 또한 모내기의 선행공정인 논판물대기, 써레치기, 모뜨기를 확고히 앞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 군농기계작업소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현실조건에 맞게 기술적지도를 추진해야 (로동신문 5.19)

- 황주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올해 씨뿌리기철에는 봄날씨가 찼지만 모내기철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예상외로 높아져 모가 자라는 기간이 짧아진 현실적 조건에 맞게 실속있는 방도를 찾아내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함.
- 농장에서는 먼저 트랙터를 집중하여 마른논써레치기를 하고 뒤따라 분조별로 논두렁

짓기를 경쟁적으로 함. 그리고 논두렁짓기를 끝낸 포전 순위로 물을 대면서 물논써레치기를 실시함.

- 이와 함께 트랙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속품을 제때에 보장하고 양수동력설비마다 만부하를 걸고 양수기운정공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도록 적극 도와줌.
- 또한 군일꾼들은 모를 내면서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바로 세움.

○ 모내기에 모든 힘을 집중 (로동신문 5.22)

- 황해남도 농촌에서 모내기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 도에서는 청단군 청정협동농장에서 모내기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도록 기술지도를 하고 있음.
-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신천군 백석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고 있음. 이들은 토양의 특성에 맞게 써레치기를 앞세우고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철저히 보장하면서 정성껏 모를 내고 있음. 또한 기계화비중을 높여 일정계획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음.
- 배천군, 연안군의 농촌에서도 노동력조직을 바로하고 농기계이용률을 높여 그날 모내기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음.
- 해주시의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올해 인민의 먹는문제, 식량문제해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농촌지원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있음.

○ 모내기전투로 들끓는 협동벌 (로동신문 5.27)

- 황해북도에서는 모내기의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리원시에서는 본보기농장인 미곡협동농장의 모내기경험을 모든 농장들이 따라배우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에서는 모든 농장에서 모내는기계의 가동률을 높여 모내기의 속도와 질을 같이 보장하도록 함.
- 은파군에서는 논면적이 많은 농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일군과 농장원이 모내기의 속도와 질을 같이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군에서는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모내기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음.

○ 기술적 대책을 제때에 세워 (로동신문 5.29)

- 가을걷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모종류별에 따라 모내기날짜를 바로 정하고 이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올품종과 늦품종에 따라 모기르기방법을 달리하여 모기르는 기간이 오랜 품종부터 씨뿌리기를 하고 모내기도 생육기일이 오랜 품종부터 먼저 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

- 더불어 기사장이 마른써레치기방법을 받아들이는 한편 논에 물을 깊이 대주었다가 일정하게 뽑고 써레를 쳐서 속도와 질을 모두 보장하여 적기에 모내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예상했던대로 모내기시작부터 모든 작업반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3. 밭농사

☐ 강냉이

○ 강냉이심기 마감단계 (로동신문 5.17)

- 각 농촌에서 강냉이심기가 마감단계에 이름. 평양시, 남포시, 평안북도, 황해남도 내 농촌에서 강냉이심기가 이미 끝남.
- 특히 만경대, 락랑구역, 강남군을 비롯한 평양시 주변 농촌에서 일기조건에 맞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심기에 들어가 날마다 계획을 1.5배 이상 수해함으로써 일정보다 5일 앞당겨 파종을 결속함.
- 해주시, 재령, 배천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날짜별, 포전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노동력을 집중하여 15일까지 앞그루 강냉이심기를 마무리함.
- 자연지리적 조건이 불리한 자강도에서도 이랑짓기 등의 공정에서 매일 7~8%의 실적을 올리고 있음.

4. 감자농사

☐ 감자농사

○ 감자심기 마감단계 (로동신문 5.21)

- 북부고산지대 농촌에서 감자심기가 마감단계에 들어섬.
- 감자농사경쟁단위인 대홍단군과 삼지연군, 백암군, 부전군, 장진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감자심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날마다 실적을 올리고 있음.
- 대홍단군이 올해에도 감자심기를 제일먼저 끝내는 성과를 거둠. 군에서는 트랙터와 감자파종기를 비롯한 농기계를 만가동시켜 매일 많은 면적의 감자심기를 질적으로 수행함.
- 무산군이 지난 5월 15일까지 감자심기를 끝낸데 이어 연사군에서도 감자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냄. 그리하여 함경북도에서는 고산지대 감자심기가 전부 끝남.
- 양강도 갑산군에서는 감자심기가 90% 계선을 넘어섰으며 풍서군, 김형권군, 삼수군, 보천군이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음.

○ 감자농사를 열의에 넘쳐 (로동신문 5.27)

· 삼지연군에서는 농기계, 비료를 비롯하여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직함.
· 군 농장에서는 감자종자싹틔우기와 트랙터, 농기계수리 등 모든 영농준비를 빈틈없이 끝낸데 맞게 일제히 감자심기에 들어감.
· 농장 농업근로자들은 감자파종기를 이용하면서 거름과 비료를 잘 섞어 포전에 골고루 뿌린 다음 써레를 쳐서 수평을 잘 보장함.
· 흥계수농장 일군들은 농기계 가동률을 높이면서 자체의 힘으로 트랙터수리정비를 질적으로 하여 종합적기계화수단들이 큰 성과를 내도록 함.
· 감자심기를 끝낸 흥계수, 포태, 소백산, 중흥농장의 뒤를 이어 다른 농장에서도 감자심기를 힘있게 다그쳐 성과를 거둠.

5. 농업기반

☐ 토지정리, 간석지, 국토관리 사업

○ 3천여m의 방조제가 뻗어나갔다 (로동신문 5.19)
· 황해남도 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의 건설자들은 올해에 들어와 수십만 m^3의 방조제를 건설하는 성과를 이룩함.
· 간석지개간사업에 계속 힘을 넣을데 대한 당의 뜻에 따라 연합기업소에서는 방조제를 쌓기 쉽고 부침땅으로 쓸 수 있는 6구역에 힘을 집중하여 빠른 기간에 완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 청단간석지건설사업소, 양화간석지건설사업소에서는 사업을 질적으로 수행하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6배나 되는 실적을 올림.

☐ 물길공사, 저수지, 물보장 사업

○ 황해남도 자연흐름식물길건설 힘있게 추진 (로동신문 5.18)
· 황해남도 자연흐름식물길공사가 완공되면 전기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강령, 옹진군을 비롯한 여러군의 수만정보의 논밭에 물을 충분히 대줄 수 있게 됨.
· 물길공사중앙지휘부에서는 물길굴공사와 흙물길, 저수지언제, 잠관, 물다리건설 등을 입체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공사지휘를 해나가고 있음.
· 평안남도려단의 건설자들은 물길굴공사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황해북도려단의 건설자들은 잠관건설을 비롯한 맡은 대상공사를 제때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자강도려단, 량강도려단, 남포시려단의 건설자들도 잠관을 비롯한 구조물공사에 헌신하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6. 산림

▢ 통나무 생산

○ 연간 통나무 생산계획 완수 (로동신문 5.11)

- 룡하림산사업소의 일꾼, 노동자들이 연간 통나무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함.
- 일꾼들은 공정별 작업조건에 맞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추진하였으며 사업소에서는 산판에서 통나무생산사업이 벌어지는데 맞게 사이나르기를 따라세우는데 힘을 집중함.
- 이와 함께 공무직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필요한 부속품과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도록 함.
- 벌목공과 불도저운전수, 자동차운전수들은 건설장에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주기 위하여 나무베기와 사이나르기에 열중하여 성과를 거둠.

○ 연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 수행 (로동신문 5.22)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임업성 아래 100여개의 임산작업소들이 연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기록함.
- 임업성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통나무생산에서 앙양을 일으킬 목표 아래 능력있는 일군을 각지 림산, 갱목생산사업소에 내려보내 생산실태를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함.
- 각 도임업관리국에서는 산지통나무생산에서 앞장선 단위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의미있게 진행하여 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함.
- 자강도임업관리국에서는 일군이 한 개 단위씩 맡고 산판에 올라 노동자에게 산지통나무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나무베기, 사이나르기 등 공정별사업에 앞장서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이 이룩되게 함.
- 함경남도임업관리국 아래 단천갱목생산사업소의 석우, 쌍룡작업소와 도안림산사업소의 산수, 문암작업소에서 대용연료를 이용하여 륜전기재의 가동률을 높여 연간 산지통나무 생산계획수행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함.

▢ 나무심기

○ 봄철나무심기 (로동신문 5.8)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봄철나무심기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량강도에서 40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하에 도에서는 올해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량강도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할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사업을 추진함.
- 혜산시에서는 원림조성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가로수를 심을 위치를 비롯하여 원림

설계를 여러차례 토의하고 현장에 나가 기술적지도를 추진함.

- 대흥단군에서는 80여 정보의 방풍림을 새로 조성하고 이미 있는 방풍림의 빈 공간에 많은 나무를 심음.

7. 기타 작물

▢ 남새

○ 태양열남새온실 건설 (로동신문 5.30)

- 함경북도 청진시 직하지구에 큰 태양열남새온실이 건설됨. 15개 호동으로 되어 있는 남새온실은 연건평이 만 수천㎡에 달함.
- 산기슭을 깎아 막대한 토량을 처리하고 1,000㎡에 달하는 돌쌓기를 해야하는 방대한 건설을 도에서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끝내는 성과를 거둠.
- 도에서는 앞으로 신선한 남새를 공급할 수 있게 여러 단위의 온실을 더 확장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준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유채

○ 많은 면적의 밭에 유채를 심었다 (로동신문 5.15)

- 강원도에서 유채를 많이 심어 먹는기름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강원도당위원회의 지도하에 도 일꾼들은 유채농사를 잘하는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실시하였음.
- 원산시 현동남새전문협동농장과 문천시 룡정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의 모든 협동농장에서 농장원들이 지난해보다 많은 면적의 밭에 유채를 심었음.
- 고성, 평강, 철원, 판교, 법동군을 비롯한 도의 모든 군에서 유채농사를 잘하여 먹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유채심기를 빠르게 끝내었음.

8. 기타 보도 동향

▢ 비료, 거름

○ 큰 덕을 보게 될 환경보호형 비료와 농약 (로동신문 5.18)

- 얼마전 진행된 중앙과학기술축전에서 농업과학원 농업화학화연구소는 생태환경보호형비료와 농약제품의 공업적인 생산도입과 국가적인 농약제품의 질검정체계의 과학화 실현으로 1등의 영예를 지님.
- 이곳 과학자들은 지방별 특성에 맞는 유기질재료와 집짐승배설물, 적은 양의 화학비료를 이용하여 유기질복합비료를 만들고 적용하는 방법을 확립함.

- 유기질복합비료를 만들어쓰면 화학비료의 이용률이 훨씬 높아져 그대로 이용할 때 비하여 정보당 150kg의 질소비료를 절약할 수 있음을 밝힘.
- 이곳 연구집단의 성과는 화학비료를 적게 쓰면서 비료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지력을 보존하여 유기농법으로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당정책적요구를 관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 효능높은 여러 가지 비료를 생산 (로동신문 5.19)

- 안악군 애국복합미생물비료공장에서 효능높은 티오균비료와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생산을 늘려 협동농장에 보내주고 있음.
-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미생물비료인 티오균비료는 농작물의 뿌리활성을 높여줌. 이 비료는 벼모를 키우는데 사용되며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뿌리기도 함.
-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는 농작물의 뿌리발육을 촉진시키고 여러 가지 병을 막는데 효과가 큼. 티오균비료와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는 생산원가가 적게 들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나 생산할 수 있음.
- 공장에서는 군 안의 협동농장에서 이 비료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는데 맞게 목표를 높이 세우고 비료생산공정에 따르는 모든 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음.

☐ 살림집

○ 두단동지구 살림집건설 마감단계 (로동신문 5.13)

- 공사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었지만 두단동지구에 벌써 많은 살림집이 건설됨. 또한 소학교와 편의봉사시설도 새로 세워짐.
- 살림집건설에 나선 시 구역, 군일꾼, 돌격대원들은 한달도 안되는 기간에 기초공사를 끝내고 살림집골조공사를 시작함. 공사지휘부일꾼들은 대동강이 얼어붙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수천 톤의 골재원천을 찾아내어 공사 돌파구를 찾아냄.
- 만경대구역당책임일군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제일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내며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나감.
- 만경대구역에 이어 모든 구역의 일군, 건설자들이 골조공사를 끝내고 내부공사에 들어감. 서성구역과 대성구역이 지난 4월에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지금 내부공사에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가뭄

○ 가뭄피해를 막자 (로동신문 5.25)

- 올해 이상기후현상으로 평양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 적은 비가 내려 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음.

- 한해 농사에서 지금이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임.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강냉이 영양단지모 옮겨심기와 모내기에 지장을 받고 있음. 또한 이미 심은 밀, 보리, 감자 등 여러 가지 농작물이 피해를 받기 시작함.
- 가뭄피해를 막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므로 기존의 관계체계와 기술적토대를 바탕으로 가뭄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가뭄이 심한 강냉이, 감자, 밀, 보리포전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물원천을 모조리 찾아 가뭄피해를 막는데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함. 양수설비, 밭관수시설을 만가동시키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함.
- 모내기와 강냉이, 콩, 감자 등 농작물심기를 질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가뭄피해를 막지 못하면 가을에 가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 모든 일군, 농업근로자, 지원자들은 가뭄피해를 막는데 일어서야 함.

○ 가뭄과의 투쟁을 힘있게 (로동신문 5.27)

-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최근 가뭄이 계속되고 있음.
- 자강도,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4월 27일부터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음. 특히 은천, 안악, 태탄, 삼천군과 사리원시, 강남군을 비롯한 일부지역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음.
- 4월 30일부터 대부분 지방의 낮 최고기온은 기상관측이래 가장 높아 고온현상이 지속됨. 대부분 지방의 토양습도는 6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상태임.
-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뭄의 기본원인은 올해 봄철의 대기순환체계가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중국 남부지역의 덥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우리나라로 흘러드는데 있음.
-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가뭄에 의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함.

○ 모든 가능성을 동원 (로동신문 5.30)

- 개성시에서 예년에 보기 드문 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기상 기후조건에 맞게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일군들은 포전에 나가 필지별, 품종별로 가뭄피해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움. 가뭄피해가 제일 심한 협동농장에 나가 양수기, 강우기를 비롯한 관수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함.
- 도시건설사업소와 농기계작업소를 비롯한 시안의 기관, 기업소, 공장에서는 물차를 비롯한 륜전기재와 양수기를 농촌에 보내주어 가뭄 피해를 줄이는데 성과가 나도록 하고 있음.

▢ 현지지도

○ 연안군과 배천군의 농사실태 현지지도 (로동신문 5.27)

- 최영림 내각총리는 25일 황해남도의 연안군과 배천군의 농사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함.
- 총리는 오현협동농장과 수원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봄. 수확이 높은 종자의 도입, 모내는 기계의 만가동 보장, 비료의 원만한 공급 등에 대해 강조함.
- 또한 구암호와 례의저수지의 물저장 및 보장정형에 대하여 료해하면서 현재 비가 오지 않는 조건에 맞게 논과 밭에 물을 충분히 대줌으로써 가뭄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함.

○ 신천군 새날농장,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현지지도 (로동신문 5.28)

- 최영림 내각총리는 26일 신천군 새날농장과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의 농사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함.
- 농장에서는 불리한 날씨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모내기를 다그치고 가뭄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총리는 농장에서 써레치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며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함.